



공정정보도

2011-7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노사 편집위, 내곡동 사저 의혹 보도 균형성 논의

제4기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10월 2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한 의혹 보도의 균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노측 편집위원들은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보도들이 전반적으로 의혹 제기는 소홀히 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이전을 백지화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박스 기사는 제목에 '정면돌파', '일단락'같은 표현들이 쓰여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인상을 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태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루다 보니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측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노측 편집위원들은 또 연합뉴스TV의 출범이 연합뉴스 콘텐츠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보도채널 개국 준비 과정에서 연합뉴스 제작국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자 '이러다 자칫 본사인 연합뉴스 기사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노사 편집위는 또 이번 회의에 정치·사회·전국부장을 참석시켜 내년에 있을 총선·대선 등 주요 선거에서 공정정보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편집위 회의 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일부 보도가 기술적 미숙함, 정치함의 부족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세 부장은 "정권 말기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터질 텐데 연합 보도의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정보도위원회의 고흥규 간사와 류지복 부간사, 강훈상 총무, 김성진 기자협회 지회장,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이상 노측), 김성수 편집상무, 이태운 편집국장, 장윤주 국제국장, 이선근 통합뉴스국장, 김권용 지방국 에디터(이상 사측)가 참석했다. 채삼석 기사심의실장도 옵서버로 함께했다. 다음은 회의 주요 내용 요약.

◇ 내곡동 사저 보도

■ 노측 = 청와대 관련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을 가늠할) 상징성이 있는 기사다. 그런데 최근 내곡동 사저 관련 논란에 대한 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의혹 제기에는 소극적이고 해명은 적극적이지 않았나 싶다. '기사는 역사의 기록'이란 맥락에서 제기된 의혹들 중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은 따져보고 정리해 전달해줄 필요가 있는데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주간지가 의혹을 제기한 뒤인 10월 9일 첫 기사가 나갔는데, 제목이 '李대통령, 퇴임 후 사저 내곡동으로 이전'이었다. 관련 박스기사는 '靑, 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경위 설명'이었다. 의혹이 일고 있다는 분위기는 전혀 없고 단지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는 뉘앙스의 제목들이다.

이튿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내곡동 사저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 됐다. 애초 오전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기사는 킬됐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첫 기사가 나갔다.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면서 해명도 충실히 실어주면 되는데 논란 자체는 무엇인지 제대로 다루지 않고 해명에만 쏠리니까 청와대 해명 창구 같은 인상을 준다.

■ 사측 = 사태 초기에는 사안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금도 부동산실명제 위반인지, 불법 증여인지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을 다루면서 갖고 있던 편집기준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해명도 듣지 않고 쓰긴 어려웠다.

문제는 이것이다. 선거를 치르면 이런저런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경험상 그런 의혹 중 시간이 지나면 과장됐거나 허위인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사안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많았다. 정치권이 공방을 벌일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기준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후보측에 똑같이 적용됐다. 기사를 보면 알 것이다. 우리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사안에 대한 검증엔 한계가 있다. 다만 공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은 팩트로서 소개해줬다.

■ 노측 =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내곡동으로 이전한다는 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목을 달아선 안된다고 본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될 것이란 느낌을 표시를 내줘야 한다.

박스 기사 제목도 '경위를 설명했다'가 아니라 '무엇이 논란인가'라든가 '해명-폭로 엇갈려'라고 달아야 사실을 더 정확히 전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일부 기사는 사안에 대한 해석에서 너무 어이가 없다. 내곡동 이전을 백지화했다는 박스기사에 '정면돌파', '일단락'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인 흠결이다.

'논란이 일단락될지 모르겠다'라거나 '청와대가 일단락을 기대한다'고 쓰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다.

■ 사측 =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쓴 것은 아닐 것이다. 일단락됐다고 기사

☞ 1면에 이어

쓴다고 일단락될 사안도 아니다. 표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청와대는 일단락을 기대 또는 시도한다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예민한 부분은 표현상 좀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 **노측** = 10년 뒤 후배나 일반 독자들이 '내곡동 사저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의혹이 뭐였지'하고 우리 기사를 검색해보면 여야 대변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 기사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후대에 언론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사측** =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유념하겠다. 다만 이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복잡한 사안의 경우 잘 정리했다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굴러가는 흐름을 나름대로 정리하긴 했는데 2~3년 뒤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봤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수적으로 임한다. 그렇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지적은 유념해서 편집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 보도채널 개국의 영향

■ **노측** = 보도채널 개국이 다가오면서 방송 문제가 연합뉴스 편집국 취재 기자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일선 부서에서 1분30초짜리 스탠드업 방송물을 제작하면 영상때문에 여기 저기 돌다 하루가 다 허비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출입처를 혼자 담당하는데 중요한 간담회 또는 발표가 있으면 방송이나 발표 중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 대신 누군가에게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생경한 일에 대한 두려움, 기술적인 미숙함 등에 더해 기존 출입처의 루틴

한 업무까지 부하가 걸린다. 연합은 연합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냐.

■ **사측** = 가급적 연합 편집국의 업무 로드를 줄이기 위해 공채기자도 좀 더 빨리, 많이 뽑았다. 또 북한, 교육, 기상, 보건의료 분야에선 전문성을 갖고 대담할 수 있는 방송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긴급 현안이 터졌을 때 연합 기자는 기사를 써야할 테니까 기획취재팀의 명칭을 바꿔 긴급한 방송 현장에 투입하려 한다. 우리 기자 중에 앵커도 뽑을 것이다. 앞으로도 애로사항은 얘기해달라.

또 시험방송하면서 일주일 해보고 의견 모아보겠다. 어떤 면을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틈새를 메워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 그때그때 고치겠다. 정식 론칭 전까지 가급적 현업기자로부터 양쪽 일 다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연합뉴스가 만드는 TV란 생각을 해달라. 기왕 시작된 것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대신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경영진이 머리 짜내서 양쪽 다 윈윈(win-win)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달의 참글상

8월 이달의 참글상에 '재벌가 군면제' 등(기획취재팀)

연합뉴스 공정보도위원회는 8월(송고 시점 기준) 이달의 참글상 우수상 수상작으로 기획취재팀의 '재벌가 군면제 점점 늘어..70년대생 일반의 2.3배' '〈가족품 못벗는 재벌가딸 기업가정신 실종

〉' 등 재벌 관련 기사 2건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한국 사회에서 대형 권력화한 재벌 가족이 여러 특권을 누리면서도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

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경영 일선에 속속 나서고 있는 재벌가의 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외국 명품 수입사업에 나서거나 이미 구축된 재벌가의 유통망에 특혜를 받고 손쉽게 입점하는 불공정 경영 행태를 지적했다.

최근 언론이 광고비를 무기로 한 자본권력에 예리하게 침해당해 그 본연의 역할이 상실, 왜곡되는 환경임을 비춰볼 때 권력 감시라는 참글상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공보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기획취재팀은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이달의 참글상을 수상했다.

공보위는 9월 이달의 참글상 후보작에 대해서도 회의를 열어 심의했으나 수상에 적합한 후보작이 없다고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기획취재팀 강훈상 기자가 팀을 대표해 8월 이달의 참글상을 수상하고 있다.